## "못 배운 한 풀고파" 광주청춘학교 문 열다

광주 만학도 평생교육 공약사업 중학학력인정·성인문해교실 등 "수학 어려워", "배우는 재미 느껴" 시교육청 "누구나 배움 누리도록"

"배움의 열정과 꿈이 있다면 우리는 언 제나 청춘이다!"

광주 만학도들의 배움터가 될 광주청춘 학교가 21일 문을 열었다.

광주시교육청은 이날 금호평생교육관 다목적실에서 '광주청춘학교 개교식'을 가졌다.

광주청춘학교는 학령기에 배움의 기회를 놓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초·중·고등학교 과정의 교육, 디지털·생활문해교육, 문화예술체험학습 등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하는 교육으로,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의 민선4기 공약사업이다.

광주청춘학교 개교식에는 이정선 광주 시교육감을 비롯해 학습자와 강사 등 관 계자 50여명이 참석해 마치 입학식과 같 은 설렘이 가득했다.

축하 영상은 유·초·중·고등학생, 문해 교육 학습자와 강사, 시교육청 관계자들이 함께 만든 카드섹션을 비롯해 노래, 삼행시, 인터뷰로 축하와 응원하는 모습이 생생하게 담겨 많은 학습자들의 감동을 끌어냈다.



이정선 광주시교육감과 광주청춘학교 강사, 학습자 등이 21일 광주 금호평생교육관 다목적실에서 광주청춘학교 개교식을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개교식이 끝나자 어르신들은 옹기종기 모여 새롭게 단장한 교실로 들어가 책을 펴고 선생님을 기다리고 있었다.

중학교 3단계 과정을 밟고있는 강봉순 (77)씨는 "가정형편 때문에 초등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못한 것이 평생의 한이 됐다. 이제는 배우지 못한 한을 풀고 싶었다"며 "월산초등학교에서 운영하는 수업으로 초등학교 과정 3단계를 다마치고 초

등학교 졸업장을 땄다. 자신감을 가지고 중학교 과정에 올라와보니 국어와 영어는 재밌는데 수학이 생각보다 어렵다. 그래 도 열심히 공부해서 중학교 졸업장을 따 낸 뒤에 검정고시에 도전하고 싶다"고 말 했다.

같은반 유기순(73)씨도 초등학교를 마치고 일을 해야했던 어린시절을 떠올리며 "초등학교는 간신히 졸업했지만 기성회비

를 낼 형편이 되지 못해 결국 생계전선에 뛰어들었다. 일할 때마다 교복을 입고 학교에 가는 친구들이 너무 부러워 오죽했으면 치마를 교복처럼 수선해서 다녔을 정도로 학생이 된 기분이라도 내고 싶었다"며 "이번 광주청춘학교를 통해 이렇게라도 배울 수 있다는 것에 너무 감사하다. 어렵지만 하나하나 배워가는 재미를 느끼면서 자존감 또한 높아지고 있다"고 이야

기했다.

이번에 문을 연 광주청춘학교의 프로그램은 금호평생교육관이 기존에 운영하던 △성인문해교실 △중학학력인정 성인교육 △금빛평생교육봉사단과 지난해 광주청춘학교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고졸 검정고시반 △슬기로운시니어생활(디지털문해교육)이 합쳐져 운영된다.

또 △자격증 준비과정 △원데이클래스 △문화마실 △청춘학습동아리 등 체험학 습과 동아리 활동을 위한 프로그램도 신 설됐다.

광주시교육청은 광주청춘학교 개교를 앞두고체계적인 교육과정 운영과 최적의 학습환경을 제공하고자 만반의 준비를 해 왔다. 9억여원을 투입해 올해 4월까지 수 업 공간을 리모델링과 후관 승강기 설치 등 시설 구축을 마쳤다. 현재 200여명의 학생이 등록해 배움의 꽃을 피우고 있다.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은 "광주청춘학교 에서는 성인 만학도의 학습 욕구를 충족 할 만한 프로그램과 함께 사회에 잘 적응 할 수 있는 체감도와 실효성 높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며 "앞으로 도 누구나 원하면 필요한 배움을 누리고 개인의 역량을 꽃피울 수 있게 촘촘한 평 생교육 서비스 제공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글·사진=김혜인 기자 hyein.kim@jnilbo.com

## "비타민D 부족 30대 이하서 가장 높아"

화 정 지 점 062)372-0421~3

비타민D가 가장 부족한 연령층은 30세 이하의 젊은 층이라는 연구조사 결과가 나왔다. 비타민D가 부족하면 뼈가 약해 지고 암·당뇨병 등 자가면역질환에 걸릴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

21일 전남대학교병원 진단검사의학과 나은희 교수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 중 비타민D 결핍률이 가장 높은 연령층은 30세 이하였다. 30세 이하 여성의 결핍률 은 23%로 가장 높았고, 30세 이하 남성 결핍률도 21%를 나타냈다.

이는 2017년부터 2022년 사이 건강검 진을 목적으로 비타민D의 혈중 농도를 측 정한 20~101세 한국인 11만 9335명의 데 이터를 분석한 결과다.

한국인 평균 비타민D의 혈중 농도는 21.6ng/m/였다. 오차범위는 ±9.6ng/m/이다. 비타민D 의 적정 혈중 농도는 30 ng/m/다. 한국인의 비타민D 결핍(10ng/m/미만) 유병률은 7.6%다.

봄과 겨울, 체질량 지수가 높을 수록, 염증수치가 높을 수록 비타민D가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나은희 교수는 "비타민D 결핍을 예방하는 하나의 방법으로는 적당한 자외선 아래에서 야외활동을 해 피부에서의 비타민D 합성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송민섭기자

운 첩 지 점 062)371-2772~3

## 광주 장애인부모연대 "발달장애인 가정 지원 개선하라"

청주 발달장애인 가정 참사 추모 "죽음 방지정책 마련 서둘러야"

최근 충북 청주에서 장애를 앓던 일가 족 3명이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발달장 애인 자녀를 둔 광주지역 부모들이 정부 에 장애인 가정 사회적 참사 예방책 마련 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광주지부는 21일 광주 서구 광주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죽음을 막 을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 해다 단체는 "장애가 있는 빈곤층의 삶은 훨씬 더 열악하다"며 "장애로 인한 삶의 무게들은 오로지 개인이 감수해야 하고, 죽어서야 극단의 고립 상태가 드러난다"고주장했다.

단체는 "지난 7일 충북 청주에서 발달 장애인 일가족이 시신으로 발견됐다. '통 장에 남은 돈으로 장례를 치러달라'는 유 서를 남긴 이들의 죽음은 그저 기록의 일 부로만 남아선 안 된다"며 "송파 세모녀 사건 이후 사회보장 관련 각종 법률이 개 정되고 제도가 미흡하게나마 개선됐지만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자체는 가족의 어려움을 인지

기아자동차지점 062)385-4977~8

하나로마트동림점 062)511-2901~3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요구하지 않 아 개입하지 않았다'는 답변만 늘어놓았 다"며 "청주 일가족 참사는 단순한 가정의 비극이 아닌 국가와 사회 시스템의 구조 적 무능력으로 인해 발달장애인 가족이 겪게 된 사회적 참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발달장애인 종합지원계획 마련 일환으로 △지자체 차원 사회적 고립 발달 장애인 발굴 전수조사 △발달장애인 가정 대상 주거생활서비스 도입 △발달장 애인 전문 지원 가족센터 설립 △발달장 애인 집중 사례관리사업 실시 △발달장애 인 사회적 참사 대책 진상조사위원회 구 성을 촉구했다. 정상이기자



상무동지점 062)372-3741~2